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3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야기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교훈을 표현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친구를 가까이 두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친구의 진심을 알기는 어렵다.
  - ② 친구라는 이름보다 더 흔한 것도 없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만큼 귀한 것도 없다.
  - ③ 친구와 집은 인생의 귀중한 선물이다. 그러나 친구와 집을 동시에 갖기는 쉽지 않다.
  - ④ 집은 과시의 수단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재물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인격이다.
  - ⑤ 집은 누구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집을 지을 수는 없다.

2. (물음) 강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사백신은 생백신에 비해 안전성이 낮다.
  - ② 생백신은 특이항원추출 백신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
  - ③ 생백신은 사백신에 비해 면역력의 지속 기간이 길다.
  - ④ 생백신은 특이항원추출 백신과 달리 특정 항원에만 작용한다.
  - ⑤ 사백신은 특이항원추출 백신에 비해서 제조 비용이 많이 든다.

3. (물음) 선생님이 지적한 인터뷰 문항이 아닌 것은? [1점]
- ① 연평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①
  - ②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 ②
  - ③ 한의학의 처방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 ③
  - ④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 ④
  - ⑤ 한의사라는 직업의 전망은 어떠하며, 한의사로서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 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토론자들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 |    |  |
|----|--|
| 국장 | —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해야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함. .... ①    |
|    | — 시설 확충이 필요한 공항에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함. ... ② |
| 교수 | — 국가 자산을 외국 자본에 넘겨서는 안 됨. .... ③         |
|    | — 민간 기업의 수익성 추구로 이용객의 부담이 가중됨. .... ④    |
|    | — 민영화를 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공항 운영이 가능함. .... ⑤    |

5. (물음) 사회자가 토론 진행 계획을 메모한 것이다. 실제 토론에서 나타나지 않은 항목은?

❖ 토론 진행 계획

- ◆ 진행해야 하는 토론의 핵심 쟁점을 제시한다. .... ㄱ
- ◆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며 토론을 진행한다. .... ㄴ
- ◆ 토론자의 의견을 요약해 가며 토론을 진행한다. .... ㄷ
- ◆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요구한다. .... ㄹ
- ◆ 토론자의 발언이 쟁점에서 벗어나면 쟁점을 환기한다. .... ㅁ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 언어 영역

6. 컴퓨터 자판에 있는 부호에서 연상한 의미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교우 관계’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연상한 의미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상의 대상	연상한 의미	구체화한 내용
{ }	하나로 묶임	같은 반이나 동아리에서 함께 하는 것은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①
?	관심과 호기심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그 친구를 알아 가는 과정에서 친구 관계가 발전한다. …… ②
,	쉬어 가기	오해가 생겼을 때에는 잠시 시간을 갖고 그동안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도 좋다. …… ③
=	답아 가기	서로 배려하고 믿는 자세로 친구의 생각과 입장을 인정한다. …… ④
+	힘을 모으기	서로 도움으로써 어려운 일도 헤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⑤

7. ‘독도 홍보를 위한 문자 메시지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 문구를 만들어 보았다. <보기>의 조건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 <보 기>
-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할 것.
  - 대조와 대구의 표현을 사용할 것.
  -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낼 것.

- ① 무심하면 외로운 섬 알고 보면 다정한 섬  
당신을 기다리는 소중한 우리의 섬
- ② 멀리하면 남의 땅 가까이하면 우리 땅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땅
- ③ 웃음 주고 마음 주면 기쁨 있고 사랑 있어  
동해 바다 찬 속에도 곳곳이 서 있는 섬
- ④ 우리들이 돌보지 않은 국토의 막내둥이  
가슴에서 사라지면 멀어지는 우리의 섬
- ⑤ 마음에서 사라질까 가슴에서 멀어질까  
동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

8. ‘국제표준 획득을 위한 방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 수정 및 자료 제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 국제표준 획득을 위해 박차를 가하자.

I. 서론  
국제표준의 개념과 의의

II. 본론

1. 국제표준 획득의 필요성
  - 가. 국제표준 관련 국제 환경의 변화 …… ㉠
  - 나.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국가 발전의 기반 확보
2.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획득 현황
  - 가. 국제표준 제안 및 획득 건수의 부족 …… ㉡
  - 나. 국제표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 미흡
  - 다. 국제표준 제정 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 부족 …… ㉢
3. 국제표준 획득을 위한 방안
  - 가. 새로운 기술 개발 장려 …… ㉣
  - 나. 체계적인 국제표준 획득 프로그램 마련 및 실행
    - 국제표준 제정 기구와의 협력 강화
    - 국내 개발 신기술의 대외 홍보 강화
  - 다. 수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 ㉤

III. 결론  
제언 : 국제표준 획득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 ① ㉠ : 최근의 국제표준에 관한 협정이나 선진국의 동향을 제시한다.
- ② ㉡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제안 및 획득 건수에 관한 통계 수치를 제시한다.
- ③ ㉢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획득의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II-1’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④ ㉣ :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국제표준을 획득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장려’로 바꾼다.
- ⑤ ㉤ : 상위 항목의 내용에 어긋나므로 삭제한다.

9. 국어 수업 시간에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다’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이것이 책이다./ 이것이 책이니/ 이것이 책이면/ ...
  - ㄴ. 2시가 가까워서이다./ 그것은 나무터이다./ 내가 먼저이다.
  - ㄷ.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다.

- ① ㄱ을 보니 형태가 고정되지 않고 용언처럼 활용하는군.
- ② ㄷ을 보니 앞에 붙는 말이 받침이 없을 때 ‘이-’를 생략할 수 있군.
- ③ ㄱ과 ㄴ을 보니 체언, 용언의 어미, 조사, 부사 뒤에 붙는군.
- ④ ㄴ과 ㄷ을 보니 자립성이 있는 단어와 결합될 때에는 주어가 생략되는군.
- ⑤ ㄱ~ㄷ을 보니 다른 말에 붙어서 서술의 기능을 갖게 하는군.

# 언어 영역

3

10.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 통계 : 외국인과의 결혼 건수(전체 혼인 중 차지하는 비율)	
2000년	12,319건(3.7%)
2003년	25,858건(8.4%)
2005년	43,324건(13.6%)
2. 인터뷰	
(1)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면 피부색이 다르다고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말과 한국 문화를 잘 몰라서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까워요.” - ○○씨(결혼 이민자)	
(2)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부모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관련 정책의 혼선이나 중복이 많은 것 같아요.” - ○○씨(다문화 가족 협회 회원)	
3. 관련 자료	
(1)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하며, 앞으로도 단일 민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 연구 논문의 일부	
(2) 보건 복지 가족부가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 신문 보도 자료의 일부	

- ① 1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 ② 1과 3-(2)를 활용하여, 다문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민간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③ 2-(1)과 3-(1)을 활용하여, 우리 국민의 의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다문화 시대에 맞게 우리 국민의 의식도 달라져야 함을 강조한다.
- ④ 2-(1)과 2-(2)를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식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 ⑤ 2-(2)와 3-(2)를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다.

11. <보기>의 ㉠~㉣을 고쳐 쓰기 위해 제시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6세기 말 영국 탐사대의 일원인 과학자 해리엇은 인디언 부락을 지나다가 많은 인디언들이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 인디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은 자신의 마을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인디언들은 영국인의 몸에 있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갔던 것이다. ㉡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몰랐던 인디언들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총알을 쏘아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 이후 미생물의 존재를 밝혀낸 유럽의 과학자들은 1890년대에 이르러 바이러스의 존재도 확인되었다. 웰스의 소설 『우주전쟁』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 제작되었다. 이 소설은 지구를 초토화시키던 외계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자멸하는 ㉤ 내용의 결말로 끝을 맺고 있다.

- ①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②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런데’로 바꿔야겠어.
- ③ ㉢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으니 ‘확인되었다’를 ‘확인된 것이다’로 고쳐야겠어.
- ④ ㉣은 ‘제작’이라는 말이 어색하므로 ‘창작되었다’로 바꿔야겠어.
- ⑤ ㉤은 의미의 중복을 피하여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로 고쳐야겠어.

12. <보기>를 참고하여, 문장에서의 쓰임이 자연스러운 단어에 밑줄을 그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반듯하다<sup>1</sup>[-드타-]  
 ㉠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다.  
 ㉡ 생김새가 아담하고 말끔하다.

• 번듯하다[-드타-]  
 ㉢ 큰 물체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다.  
 ㉣ 생김새가 흰하고 멀끔하다.  
 ㉤ 형편이나 위세 따위가 버젓하고 당당하다.

- ① 나는 농사만은 (반듯하게/번듯하게) 해낼 수 있다.
- ② 그 신랑은 이목구비가 (반듯하게/번듯하게) 생겼다.
- ③ 모자를 비뚤게 쓰지 말고 (반듯하게/번듯하게) 써라.
- ④ 그는 이미 주견이 (반듯한/번듯한) 성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 ⑤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이 (반듯하게/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은 선달 그믐

밤이

알곳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걸어온 길가에 짙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털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니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 주셨지

㉡ 졸음졸음 귀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여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 선 나는 ㉢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꺾인다

가도오도 못할 우라지오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

\* 아롱범 : 표범.

\*\* 마우재 말 : 러시아 말.

(나)

내 유년 시절 ㉣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뉘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를 깎아주시곤 하였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소리,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애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네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자정 지나 앞마당에 ㉤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자꾸만 쓸어내렸다. 처마 밑 시래기 한줌 부스러짐으로 천천히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숨. 사위어가는 호롱불 주위로 방안 가득 폴폴 수십 장 입김이 날리던 밤,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 기형도, 「바람의 집-겨울 판화1」 -

(다)

남산(南山)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가단 말고

난 후(亂後) 도끼가 그대로 날랴시고

두어라 우로(雨露) 곧 깊으면 다시 불까 하노라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 제비 나니

적객(謫客)의 회포는 무슨 일로 그지없어

저 제비 나는 걸 보고 한숨 겨워 하나니

적객(謫客)에 벗이 없어 빈 들보에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실 하는작고

어즈버 내 품은 시름은 너보다도 많노라

㉦ 인간(人間)에 유정(有情)한 벗은 명월(明月)밖에 또 있는가

천리(千里)를 머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설월(雪月)의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취인 꽃 여윈 속에 잤았나니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胡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을까 하노라

- 이신의, 「단가(短歌)」 -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과거의 기억을 환기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향토적 정감이 풍부한 시어를 구사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자연물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④ (가)~(다)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다)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한 갈등이 드러나 있다.

14. (가)의 시어와 시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을 '아롱범'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당당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어머니의 입김'은 화자의 추억과 연결되어 포근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③ 화자의 처지를 '등대'와 연결하여 '가도오도'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슴푸레 그리어진'은 화자의 추억이 희미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얼음이 두껍다'는 화자가 지닌 신념의 강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유년기를 다룬 기형도의 시에서 아버지는 늘 부재해 있다. 현실의 울타리로서의 부성의 부재는 불안, 공포의 정서로 연결된다. 어머니는 모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형상화된다. 부성의 부재, 불완전한 모성은 결국 기형도의 작품에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운다.

- ① ‘무서워요’는 화자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어머니조차 무서워요’에서 불완전한 모성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인 바람은 화자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상징한다.
- ④ ‘중잇장 같은 내 배’를 끌어내리는 행위를 통해 상실된 부성이 회복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시래기 한줌 부스러짐’, ‘사위어가는 호롱불’은 죽음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1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은 화자의 소망을, ㉡은 화자의 시름을 환기한다.
- ② ㉠은 화자의 과거를, ㉡은 화자의 현재를 상징한다.
- ③ ㉠과 ㉡은 모두 정겨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표상한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의 심리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다)의 ‘술’, ‘명월’, ‘매화’의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고전시가에서 자연물은 관습적 상징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 선비들은 이러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었다. (다)는 작가가 인목대비 폐위를 반대하다 함경도로 유배된 상황에서 지어졌는데, 이 시의 자연물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 ① ‘술’은 남산에 있다 배어진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조정에서 쫓겨나 유배를 간 작가를 상징하는 것 같다.
- ② ‘술’은 ‘우로’가 깊어질 때 다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어.
- ③ ‘명월’은 화자를 ‘천리를 머다 아녀 따라오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벗으로서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
- ④ ‘매화’는 여원 모습으로 꽃을 피운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유배 생활 중 작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 ⑤ ‘매화’에는 ‘향기’가 깊이 배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간직하고 있는 지조를 나타내는 것 같다.

1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배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 유사한 구조의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 : 대립적 시어를 병치하여 상황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속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 :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투병 중이던 최 교수의 부고를 듣고, 서울행 비행기를 탈지 말지 망설인다. ‘나’는 과거 최 교수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는 응접실로 나오지도 못하고 ㉠ 안방에 딸린 침구 위에서 나를 맞았다. 전번에 찾아오려고 했을 때, 병원에 가고 안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두 주일이 지나 있었다.

“그렇겠지. 막살아왔다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왔다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무슨 짓이든 하겠지. 그러나…… 난 그렇지가 못하잖아. 그렇게 막살지도 못했잖아.”

㉡ 얼음 조각을 하듯 그렇게 사셨을 것이다. 깨뜨리면 잘못 부수면 회복이 안 되는 것으로 사신 시간들일 것이다. 선생님의 시간.

“폭력적인 생각이 자꾸 들곤 해. 뛰어내릴까. 그래서라도 죽는 게 낫지 않나. 딱 죽는 약이 있으면 먹을까도 싶고. 이런 폭력적인 생각을 또 고쳐. 내가 이래선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왜 그런 약한 생각을 하세요. 나는 겨우 그렇게 중얼거리려다가 목이 아프게 누르며 그 말을 참았다. 아무것도 선생님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

“죽음이…… 화려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해. 그게 두렵지가 않아. 이상하지. 전에 할아버지 무덤에 가 앉아 있을 때 생각이 나. 그때, 그 용단같이 푸른 잔디를 보며 앉았노라면 그렇게 좋고 평화스러울 수가 없었어. 내가 이제 여길 내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살아갈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지. 물론 살아가며, 순간순간의 기쁨이야 있겠지. 그러나……”

㉢ 이미 노오랗게 물들어 있는 선생님의 눈을 나는 가만히 바라보았다. 병이 저렇게 만든 것일까. 검고 컸던 선생님의 눈. 우리는 이다지도 무력한가. 우리가 무엇을 이룩하겠다고. 무엇을 남기겠다고 매일을 고단하게 살았던 말인가. 메마른 입술을 적시며 선생님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길이 커튼이 열려진 창에 가 멎었다. 텅 빈 하늘이 거기 가득했다.

“끊임없이 싸워. 정상적인 자아와 병든 자아가 이십사 시간을 싸워. 이게 나야. 내가, 두 개의 내가 살아 있어. 내가 나를, 정상적인 자아가 병든 자아를 두 시간만 재워 놓자. 그러면서 잠이 들어. 여덟 시에 깨우자. 그러면서 살아. 병든 자아를 달래서 약을 먹고, 병든 자아에게 사정해 가며 물도 몇 모금 먹고……”

그때, 왜 그 생각이 떠올랐을까. 그것은 내가 본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의 선생님이었다. 그때 선생님은 대학의 보직을 맡고 있었다. 마침 약속이 있어서 학교 본관의 처장실로 찾아갔을 때

였다. 그때 다른 단과 대학의 학장을 했던 원로 교수 하나가, 최명하 너 이놈 하고 고향을 치며 처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아마 선생님보다 스무 해는 나이가 위였을 게다. 그를 향해서 그때 선생님이 소리쳤다. 학자라는 게 나잇값도 못하고! 당신하고 할 이야기 없으니 당장 나가! 놀라서 짐무실 한구석에 나는 서 있었고, 선생님은 그 노교수의 등을 밀어 밖으로 내몰았다. ㉔ 문을 닫아걸며 선생님이 내뱉듯 말했다. 무슨 부정 입학생 명단을 수첩에 적어 가지고 합격을 시키자니! 그걸 내가 못 한다고 잘랐더니 저 주책이야! 그때는 마침 입시철이었다. 것처럼 격렬하고 단호했던 선생님의 모습이 갑자기 왜 떠오르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때의 그 선생님, 또 다른 선생님의 자아를 생각했던 것일까.

㉔ 메마른 발을, 여윈 발을 당겨 앉은 자세를 바꾸며 그때 선생님이 중얼거렸다.

“황 교수, 그 사람이 뭔데 나보다 이십 년을 더 살아. 말이 나 되는 소리야. 나보다 이십 년을 더 살다니.”

황 교수. 그분은 선생님과 가까운 국문과 교수였고, 원로 소설가였다.

“오늘 비행기는 전연 예약이 안 되네요. 그냥 비행장으로 나가 보실래요. 좌석이 있으면 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내의 그런 말을 들으며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아니, 가지 않겠어. 병든 자아와 정상적인 자아가 아냐. 수없이 많은 내가 내 속에 있어. 그의 죽음을 지켜보며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자아와 싸웠던가. 때로는 두려웠던 나. 때로는 슬펐던 나. 때로는 그의 병듦을 보며 살아있는 자신이 기뻐했던 나도 있었어. 그의 무너져 가는 몸을 보며, 건강에 조심해야지 하고 쥐가 천장을 갇아대듯 속삭인 나도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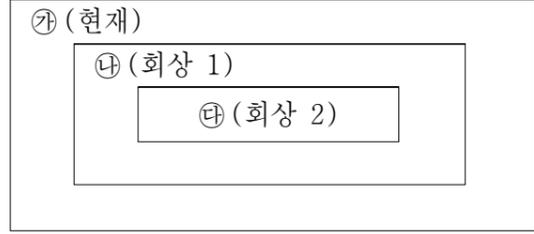
[A] 그는 새로 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댔다. 비뚤어진 매듭을 거울 속으로 바라보며 다시 땀까 어쩔까를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양복을 걸치며, 넥타이를 고치지도 다시 매지도 않은 또 하나의 자신에게 말했다. 두 시의 약속을 미룰걸 그랬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기 위해 구두를 신으며 그는 오늘 저녁에는 술을 마시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많이 마시지는 마. 밖으로 나섰다. 바람이 빗발을 뿌려 그의 구두를 젖게 했다. 그는 우산을 바람 쪽으로 기울이며 걸음을 빨리했다. 비는 모래알같이 뿌려졌다. 골목에는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사막 같았다. 비를 맞고 있는 집과 나무와 아스팔트 포장에 된 골목을 바라보았다. 사막. 순간 그는 자신 속에 아무도 살아 있지 않다고 느꼈다. 어떤 모습의 그도.

- 한수산, 「타인의 얼굴」 -

1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내면 의식 묘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나'의 공간 이동에 따라 서사의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 ③ 동일한 사건이 선생님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 ④ '나'가 선생님의 생각을 따르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 ⑤ '나'의 체험과 선생님의 체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차되고 있다.

20. 위 글의 시간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는 선생님의 부고를 들은 후의 시간이다.
- ② ㉒는 선생님께서 병문안을 갔을 때이다.
- ③ ㉓는 선생님이 대학에서 보직을 맡고 있을 때이다.
- ④ ㉒의 선생님의 모습이 ㉓를 떠올리게 한다.
- ⑤ 황 교수에 대한 선생님의 말로 인해 ㉒에서 ㉑로 돌아온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우리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타인에 대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던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낯선 체험을 할 수 있다. 타인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체험은 자아와 삶의 본질에 대한 사색으로 이어진다. 이 작품의 제목인 '타인의 얼굴'은 이런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① 거울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자신'은 '또 다른 나'에 해당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② 선생님은 '나'가 삶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게 하는 '타인의 얼굴'로 볼 수 있다.
- ③ '사막'은 삶의 본질에 대한 '나'의 인식과 내면을 보여 주는 상징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 ④ '나'가 '그'와 대화를 하는 행위는 자아와 삶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자신 속에 아무도 살아 있지 않다'고 느낀 것은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선생님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 준다.
- ② ㉒ : 지난날 선생님의 신중하고 철저했던 삶을 나타낸다.
- ③ ㉓ : '검고 컸던 선생님의 눈'과 대비되어 선생님의 심신의 변화를 나타낸다.
- ④ ㉔ : 격렬하고 단호했던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㉔ : 삶에 대한 선생님의 초연한 태도를 드러낸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자들 중에는 쓰기와 읽기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책을 멀리하고 책을 통해 얻은 지혜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가짜라고 생각하였다. 책에 대한 이러한 태도의 근원에는 플라톤이 있다. 플라톤은 글쓰기에 대한 혐오감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표현한 철학자였다. 그런데 ‘플라톤은 글을 쓰다가 죽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많은 글을 썼고, 어떤 철학자보다도 치밀하게 다듬어진 저작들을 남겼다. 그럼에도 플라톤이 글쓰기 또는 ‘쓰인 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플라톤은 문자가 언제나 그렇게 좋은 것만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는 살아 있는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암송하여 자기 것으로 내면화했을 때 참된 지혜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문자로 기록된 것은 필요할 때 다시 들추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는 문자 때문에 기억은 점점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망각과 상실이 늘어날 것을 염려한 것이다. 플라톤은 ㉠ 문자로 쓰인 텍스트는 ‘생생하고 혼이 깃든 말(진리)’의 복사에 지나지 않으며, 내면적 정신의 외화(外化)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문자로 된 기록에는 정신의 특성인 내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플라톤에게 있어 읽기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읽기의 주체와 읽기의 대상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일, 즉 ‘자기 현존’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자와 문자로 쓰인 텍스트에 의존하는 것은 기억을 통한 능동적인 자기 현존을 저해하고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완벽한 자기 현존이 아무런 매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과 관련하여 “심각한 사람은 심각한(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쓰지 않는다.”라는 플라톤의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심각한 문제에 관해 쓴 글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심각하고 중요한 일에 관한 것일수록 글로 남길 생각을 말 것이며, 만일 그와 같은 글을 보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러한 말을 글로 써서 남겼다. 사실 플라톤 자신이 자신의 말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참과 거짓, 선, 정의, 죽음 등 매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많은 분량의 글을 써서 남겼기 때문이다. 그는 매우 심각한 사람이었고 그가 다룬 주제 역시 심각하고 중요한 것들이었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여기서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는가? 일견 모순으로 보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철학과 텍스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철학은 언제나 텍스트를 초월해서 현실과 진리의 문제에 맞닥뜨리고자 한다. 텍스트는 현실의 총체적인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며, 살아 있는 진리를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월도 문자와 텍스트를 거쳐서 수행될 수밖에 없다. 철학과 사유는 문자와 텍스트를 통해 지탱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23.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글쓴이가 다룬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쓰기와 읽기에 대한 철학자들의 부정적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 ② 플라톤은 왜 텍스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는가?

- ③ 플라톤이 남긴 저작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어떠하였는가?
- ④ 플라톤이 말한 ‘자기 현존’의 의미는 무엇인가?
- ⑤ 텍스트에 대한 플라톤의 모순되는 듯한 태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4. <보기>를 위 글과 관련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는 꿈꾼다 글자, 네가 나의 육체를 파기하고  
 내 육체의 황홀한 폐허 위에 견고한 글자의 집을 짓기를  
 그리고 나는 꿈꾼다 글자, 내 육체에 더께처럼 내려앉은  
 너를 날날이  
 파기해버리고  
 내 육체만의 홀가분한 길을 떠나기를  
 - 이선영, 「글자 밖에서」 중에서

- ① ‘나’와 ‘글자’ 사이의 관계는 철학과 텍스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와 유사한 것 같아.
- ② ‘네가 나의 육체를 파기’한다는 것은 플라톤이 말하는 ‘자기 현존’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 ③ ‘견고한 글자의 집’은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내면적 정신의 외화’이겠지만, 위 글에서처럼 철학적 사유의 토대가 될 수도 있을 거야.
- ④ ‘육체에 더께처럼 내려앉은 너’는 플라톤이 말한 ‘생생하고 혼이 깃든 말’의 복사에 불과한 텍스트로 볼 수 있어.
- ⑤ ‘내 육체만의 홀가분한 길을 떠나가기’를 꿈꾼다는 것에서, 텍스트를 초월해서 현실과 진리의 문제에 맞닥뜨리고자 하는 철학의 특성을 엿볼 수 있어.

25. 텍스트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후설은 문자로 적힌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잡담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② 데카르트는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은 확실성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 ③ 장자는 진정한 도는 말이나 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몸소 익히고 깨달아야 한다고 하였다.
  - ④ 베이컨은 책 대신 오직 ‘자연의 빛’인 이성에 의존하여 ‘세계라고 하는 큰 책’을 읽을 것을 권유하였다.
  - ⑤ 레비나스는 책은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문제를 보게 하고 삶의 모습을 그려 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6. ㉠에 있는 조사 ‘-로’와 그 쓰임이 같은 것은?
- ① 배탈로 결근하다.
  - ② 회사 일로 바쁘다.
  - ③ 얼음이 물로 되다.
  - ④ 과일을 칼로 자르다.
  - ⑤ 이 방은 서재로 쓰인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음악이 좋은 것이고 어떤 음악이 나쁜 것일까?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음악학자인 에게브레히트는 음악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감성적 판단과 인식적 판단이라는 두 가지 척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감성적 판단이 ‘좋다’, ‘나쁘다’ 등과 같은 감성적 차원의 언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식적 판단은 감성적 판단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것으로, 감성적 판단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에게브레히트는 음악을 들을 때 감성적인 판단과 인식적인 판단의 비중은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인식적 판단은 문외한에게는 거의 활용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경우에는 인식적 판단과 감성적 판단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인식적 판단보다 감성적 판단이 근본적인 우위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음악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에게브레히트가 감성적 판단과 인식적 판단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달하우스는 주관과 객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미적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서 객관적 검증이 필요 없다는 통설적 미학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한 견해를 지닌 사람들은 다수가 취한 쪽을, 즉 집단에 의한 판단을 몰개성적으로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달하우스는 음악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 판단이 집단에 의한 판단에서 비롯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비발디의 ‘사계’가 좋은 음악이라고 평하는 사람에게는 비발디의 ‘사계’에 대한 그 사회의 집단적 호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관적 판단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되, ‘집단에 의한 판단에 기초하면서도 그 판단을 몰개성적으로 따르는 않는 주관적 판단’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집단에 의한 판단을 고려하면서도 이를 개성화된 반응이 가능할 정도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달하우스는 이러한 판단이야말로 미적 대상에 대한 올바른 미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그는 객관적 판단의 필요성을 옹호하였는데, 객관적 판단은 단순히 주관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을 검증하고 검토하는 도구로서 기능한다고 보았다. 그는 음악에 대한 미적 평가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사실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음악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가 어디까지나 작품 자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7. 위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음악에 대한 판단에서 에게브레히트와 달하우스의 차이는 무엇인가?
- ② 에게브레히트는 좋은 음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무엇을 들었는가?
- ③ 에게브레히트는 감성적 판단과 인식적 판단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 ④ 달하우스는 주관적 판단이 집단에 의한 판단과 어떻게 관련된다고 보았는가?
- ⑤ 미적 판단에 관한 달하우스의 생각은 통설적 미학의 견해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28. 클래식 음악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의 일부이다.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게시판

클래식 곡 중 널리 알려진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을 듣고 감상을 공유해 봅시다.

:

[해님] 정말 마음에 드는군요. 저는 이 작품이 웅장하고 능률하면서도 발랄함과 경쾌함을 지니고 있어서 좋아요. 아무래도 독특한 변주의 기법 때문인 것 같아요. …………… ㉠

[별님] 베토벤의 ‘영웅’이 지닌 당당함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다 인정하는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

[달님] 그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표제 음악처럼 주제를 잘 살리고 있어요. 곡 전체가 웅장하죠. 하지만, 주제를 너무 염두에 둔 나머지 음의 구성 자체에 소홀한 면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 ㉢

- ① 달하우스에 따르면 ㉠의 ‘정말 마음에 드는군요.’와 같은 판단은 집단에 의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에게브레히트에 따르면 ㉡은 감성적 판단을 내린 다음,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인식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 ③ 달하우스에 따르면 ㉢에서는 주관적 판단을 검증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
- ④ 에게브레히트에 따르면 ㉢은 인식적 판단과 감성적 판단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⑤ 달하우스에 따르면 ㉢은 집단에 의한 판단에 기초하면서도 그것을 개성화된 반응이 가능할 정도로 확대시키고 있다.

29. 위 글을 교지에 소개하고자 한다. 도입 문구로 적절한 것은?

- ① 음악에 대한 판단 혹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 ② 음악에 대한 판단 혹은 평가가 다른 예술 분야에서의 미적 판단과 어떻게 다른지 탐구해 보자.
- ③ 음악에 대한 판단 혹은 평가에서 감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까닭에 관해 생각해 보자.
- ④ 음악에 대한 미적 판단 이론과 그 실제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자.
- ⑤ 음악에 대한 미적 판단 이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아보자.



33. ㉠~㉣를 활용하여 짧은 글짓기를 해 보았다. 단어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국제기구는 국가 간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② ㉡ : 개인들의 노력이 합쳐지면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다.
- ③ ㉢ : 기름 값이 오르면서 소형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 ④ ㉣ : 여러 회사 중 우리 회사가 수도권 지역 사업자로 설정되었다.
- ⑤ ㉤ : 이기적인 욕망은 사회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겨울, 중년기의 옹고집이 슬픔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얼어붙은 땅바닥을 기어 다니며 오열하고 있다.

**옹고집** 슬프다, 진짜는 울면서 쫓겨났는데 기쁘다, 가짜는 웃으면서 춤을 추네!  
(벌떡 일어나 뺨을 돌면서 묻고 묻는다.)  
내가 옳으냐? 네가 그르냐?  
내가 그르냐? 네가 옳으냐?  
내가 좋으냐? 네가 나쁘냐?  
내가 나쁘냐? 네가 좋으냐?  
내가 고웁냐? 네가 미웁냐?  
내가 미웁냐? 네가 고웁냐?  
내가 진짜냐? 네가 가짜냐?  
내가 가짜냐? 네가 진짜냐?  
내가 사람이냐? 네가 허수아비냐?  
내가 허수아비냐? 네가 사람이냐?  
(울고 웃더니 자기 자신의 몸을 쥐어뜯는다.)  
괴롭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알 수 없구나!

(십장생도, 차츰차츰 밝아지며 열 명의 신선들 모습이 그림자로 비춰진다.)

**신선들** 어찌하여 너는 괴로워하느냐?  
**옹고집** 나는 나를 잃어버렸소.  
**신선들** 네가 너를 잃어버린 지 몇 해나 되느냐?  
**옹고집** 몇 해나 되는지도 모르겠소. 십 년이 지났는지 이십 년이 지났는지.....  
**신선들** 네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가 보아라.  
**옹고집** (㉠ 방향을 바꾸어 뺨을 돈다. 사이. 문득 걸음을 멈춘다.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달아나는 몸짓을 한다.)  
**신선들** 무엇이 있느냐?  
**옹고집** 집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쫓

아내고 있소.

**신선들** 오던 길을 더 되돌아가 보아라.  
**옹고집** (원형의 뺨을 다시 돈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신선들**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옹고집** 텅 빈 들판에 허수아비가 서 있소. 그 모양이 나를 꼭 닮았소.  
**신선들** 오던 길을 더 되돌아가 보아라.  
**옹고집** (원형의 뺨을 돌며 걷는다. 사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는다.)  
**신선들**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옹고집**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때리고 있소.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르고 있소. 내가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고 있소. 사람들의 목이 타고, 가슴이 타고, 땀이 타고 있소.  
**신선들** 오던 길을 더 되돌아가 보아라.  
**옹고집** (뺨을 돌며 걷는다. 사이. 문득 멈춘다.)  
**신선들** 거기엔 무엇이 있느냐?  
**옹고집** 나 때문에 부모님이 서럽게 울고 있소.  
**신선들** 오던 길을 더 되돌아가 보아라.  
**옹고집** (뺨을 돈다. 사이. 문득 멈춘다.)  
**신선들** 무엇이 있느냐?  
**옹고집** 내 어린 시절, 남의 닭을 훔쳐 먹고 있소.  
**신선들** 오던 길을 더 되돌아가 보아라.  
**옹고집** (뺨을 돈다. 사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태아처럼 몸을 둥글게 웅크린다.)  
**신선들** 무엇이 있느냐?  
**옹고집** 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 뺨속에 웅크리고 있소.  
**신선들** 네가 거기까지 갔구나. 길은 그곳에서 시작이니 일어나서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가라.  
**옹고집** (몸을 웅크린 채 회한의 감정이 복받쳐 흐느끼며) 난 가지 않겠소! 지금 왔던 길을 다시 가면 난 가짜한테 쫓겨날 뿐이오! 난 다른 길을 가고 싶소! 나를 되찾는 길, 새 길로 나를 가게 해 주시오!  
**신선들** 그 새 길이 어떤 길인지 네가 아느냐?  
**옹고집** 이제는 알 것 같소. 나를 나눠 주는 길이 나를 되찾는 길이오.  
**신선들** 네가 그것을 깨달으니 우리도 참 기쁘구나! 고집아, 옹고집아, 고개를 들어라!  
**옹고집** (고개를 들어 십장생도를 바라본다.) 아..... 누구시오?  
**신선들** 네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여기에 있다! 하늘에는 해가 있고, 구름이 있고, 땅에는 산이 있고, 돌이 있고, 물이 있고, 소나무가 있고, 불로초가 있고, 거북이 있고, 학이 있고, 사슴이 있으니, 모자란 것도 없고, 지나친 것도 없고, 보탬 것도 없고, 빼낼 것도 없다. 활짝 눈을 뜨고 보아라! 동쪽의 해가 밝게 보이느냐? 그리하면 서쪽의 저 문 달도 맑게 보이리라. 어둠 속에 없던 것이 밝음 속에 있고, 흐림 속에 없던 것이 맑음 속엔 있다. 있는 것을 갖고자 애쓰지 말라! 이미 네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무엇을 더 갖겠느냐? 잘못된 옛 길을 버리고 바른 새 길로 가라! 오랫동안 헤매다가 너를 찾아 돌아가는 길, 마침내 너는 즐거우리라!

- 이강백, 「비용사용」 -

34. <보기>를 고려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고전소설 『옹고집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작가는 옹고집을 통해 소유욕에 사로잡힌 현대인의 삶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유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려고 했다.

- ① 괴로워하는 ‘옹고집’을 통해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갈등하는 상황을 드러내고자 하였군.
- ② ‘옹고집’이 목격한 ‘허수아비’는 소유에 집착하다 정작 ‘나’를 잃어버린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군.
- ③ ‘옹고집’이 도달한 ‘어머니 뱃속’은 소유욕에 사로잡힌 삶을 바로잡아 참된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군.
- ④ ‘나를 나눠 주는 길이 나를 되찾는 길’이라는 대사는 현대인으로 하여금 소유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군.
- ⑤ 그 자체로 충만한 세계를 보여 주는 ‘십장생도’는 소유욕에 사로잡힌 현대인에게 ‘새 길’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군.

35. 위 글에서 ㉠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옹고집’이 삶의 회로애락을 경험하게 한다.
- ② ‘옹고집’이 지난날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한다.
- ③ ‘옹고집’이 시대적 모순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 ④ ‘옹고집’과 ‘신선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게 한다.
- ⑤ ‘옹고집’의 경박한 성격을 점진적으로 부각시킨다.

36. 위 글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연극반 학생들이 토의하고 있다.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장면에서 겨울은 ‘옹고집’의 현재 처지와 어울리는 설정이야. 계절적 배경의 상징성이 잘 살아나도록 해야 해.
- ② ‘옹고집’의 첫 번째 대사는 운율감이 느껴지도록 노래로 부르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 ③ ‘옹고집’이 중간 중간 보고 있는 환영을 무대에서 어떻게 연출할지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 ④ ‘신선들’은 그림자로 비춰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목소리에서 신선이라는 느낌이 나도록 할 필요가 있어.
- ⑤ ‘옹고집’이 ‘십장생도’를 바라볼 때에는 ‘옹고집’보다는 ‘신선들’의 표정 변화가 잘 드러나도록 조명을 비출 필요가 있어.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마을 동쪽 집 남자 효렴에게 마음이 있던 향량은 부모님의 뜻대로 서쪽 집으로 시집을 가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박대로 쫓겨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원치 않는 개가를 강요당한 향량은 물에 빠져 죽는다. 천상계의 존재가 된 향량은 효렴이 자신에게 올린 제문에 감동받아 그를 찾아간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닭이 새벽을 알리고 셋별이 반짝거렸다. 향량은 곧 일어나며 “말하자면 기니, 훗날을 기약하지요.” 하다가 갑자기 다시 슬퍼지면서 물었다.

“스스로 중매를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오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그대를 믿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언짢아하지 않으신다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마음이 통한 것이라 하겠습니까.”라고 하며, 이별하려다가 다시 뒤돌아서 효렴과 인연을 맺고자 하는 소원을 거듭거듭 전했다.

효렴 또한 더욱 잇을 수가 없어 문에 기대어 우두커니 서서 바라다보다가 계단을 내려서서 몇 발자국 떼는데, 순식간에 종적이 없어졌다. 효렴은 안타까운 마음을 이기지 못해 잠자리에 누웠어도 몸만 뒤척이며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를 꺼내 큰 글씨로 절구 하나를 지었다.

선녀도, 귀신도 아니고 사람이라 하네  
 ㉠ 청조가 날아오더니 소식이 새롭구나  
 바다는 넓고 산은 높는데 훗날을 기약하니  
 꽃다운 자태는 다시 오지 않아 청춘을 원망하네

시가 완성되자 또 사랑스레 어루만지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 자리에 들어서는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향량이 남긴 종이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글은 위부인을 본받은 것이었고, 시는 두추량의 <금루사>를 본받은 것이었다. 시는 다음과 같았다.

일찍이 인간 세상을 좇아 잠시 사람이 되어  
 ㉡ 전에 좇지 않은 것 후회스러워 새 약속을 맺네  
 그대 마음 해와 달처럼 변함없음을 아나  
 추운 계곡에 앉았어도 봄별 따뜻하게 피어나네

또 글은 다음과 같았다.

굳은 맹세 전날 밤에 맺었고 아름다운 인연 내세를 기약했네. 옛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며, 새 사람이 옛 사람 아니라고 믿지 마라.

효렴은 기쁨이 극에 달해 도로 슬퍼지며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

이날 향량은 후토 부인 앞에 나아가 그 이유를 다 아뢰고, 천제계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결혼하게 해 달라고 청한 것을 아뢰었다.

“몸의 형체는 이미 소상이 지났으나 성씨는 다를 바가 없고, 이승과 저승 사이의 명부도 달라지지 않았습시다. 속은 귀신이지만 겉으로는 사람에 지나지 않으니 이대로 인간으로

환생한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동네 누구누구의 자식으로 어느 지역에 사는 아무개가 일찍이 어느 동네 아무개의 처가 되었다가 지금은 또 어느 동네 아무개의 부인이 되었다.’고 수군거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 년이 지나도록 부끄러운 행위를 했다는 이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비록 집에서 말을 한다 해도 어찌 능히 스스로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면서 행동하면 이름을 날릴 수 없고 의심하면서 일을 하면 공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 비록 죽었으나 죽지 않아서, 죽은 지 일 년이 지나도 얼굴과 모습은 여전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하물며 버림받은 아내가 다시 재혼한다 해도 몇몇한 정에 비추어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살아난 일만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죽었던 일도 진실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소문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사람의 말 많음 또한 두렵습니다. 나이와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서쪽에 살던 남자에게 버림받은 부인이 버젓이 동쪽에 사는 남자 집에 있다면 옛 남편과 새신랑이 같은 동네에 사는 꼴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비웃으며 손가락질할 것은 진실로 이와 같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된다면, 연못가에 신발을 벗어 놓고 자살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로운 열녀라는 정려와 포상은 모두 사람을 속인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아비와 시어미가 죄를 묻고, 중들이 몰래 웃고, 친척들이 부끄러워하고, 이웃들이 내놓고 모멸하는 것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천지에 받아들여질 곳이 없으니, 이미 스스로 자초한 것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 영혼과 형체를 돌이켜 인간 세상에 새롭게 다시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실로 천지의 후덕하심을 입어 뼈와 살이 아직 썩지 않았고, 정신이 생전에 비해 못하지 않으니, 자식처럼 여겨 주시는 후토 부인의 은혜와 살 길 열어 주기를 좋아하시는 선성(仙聖)의 덕이 지극하고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양지와 양능이 있는데, 이는 하늘이 내려 주신 것이어서 일과 마음이 서로 어긋나면 행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바라기는 부인께서 자비를 크게 더하셔서神通한 능력을 널리 베푸사 방법을 빨리 마련하셔서 은혜를 머금은 몸으로 하여금 못 다한 회포가 없게 해 주신다면 그 은혜가 막대하다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진댄 비록 몸은 선가에 돌아가고 뼈를 황천에 묻는다 할지라도 끝내 이 몸을 혐의로운 곳에 두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저의 뜻입니다.”

- 김소행, 「삼한습유」 -

37. 위 글의 ‘향랑’과 ‘효렴’에 대해 잘못 파악한 것은?

- ① 향랑은 스스로 중매한 이유를 효렴에게 해명하고 있다.
- ② 향랑은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 ③ 향랑은 열녀로서의 죽음이 의심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 ④ 효렴은 향랑에 대한 생각으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 ⑤ 효렴은 향랑이 남긴 시와 글을 보고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

38.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바다는 넓고 산은 높는데’를 통해 효렴은 향랑의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 ‘꽃다운 자태는 다시 오지 않아’를 통해 효렴은 향랑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의 ‘전에 좇지 않은 것 후회스러워’를 통해 향랑은 효렴과 인연을 맺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 향랑은 효렴의 마음을 ‘해와 달’과 같은 자연물에 빗대어 그에 대한 굳은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 향랑은 ‘추운 계곡’과 ‘봄별 따뜻하게’를 대비하여 효렴을 통해 느끼는 애뜻한 정을 표현하고 있다.

39. ‘향랑’이 ‘후토 부인’에게 말하는 방식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 ㄱ. 유사한 다른 사례를 들어 설득하고 있다.
- ㄴ. 예상되는 부정적 상황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ㄷ. 상대의 덕을 드러내면서 인정으로 호소하고 있다.
- ㄹ. 권위적 어조와 의지적 어조를 교차하여 구사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0.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김소행은 문장에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었지만 서열의 후손으로 그것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향랑은 실존했던 인물로 조선 후기 사대부들에게 열녀로 여겨진 인물이다. 김소행은 향랑의 행적을 바탕으로 하면서 거기에 환상을 더하여 「삼한습유」를 지었다.
- 고전 소설에서 환상은 불우한 삶을 산 인물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성취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상에는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으며, 또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기도 하다.

- ① 죽은 향랑이 살아 있는 효렴에게 나타나고, 또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것을 통해 환상으로서의 작품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어.
- ② 향랑이 스스로 중매를 하고 또 후토 부인과 천제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은, 환상에서 인물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성취하려는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아.
- ③ 향랑이 직접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작가는 비현실적 환상이 지니는 교훈적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
- ④ 작가는 환상을 통해 사대부들에게 열녀로 여겨진 향랑을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인물로 변모시킴으로써 당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 ⑤ 향랑은 살아서는 효렴과의 인연을 맺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우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어. 이러한 모습에는 현실에서 제 뜻을 펼치지 못한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㉔ 빛으로 머리를 빗으면 빗에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울울이 치켜 올라가는 경험을 해 보았을 것이다. 정전기 때문이다.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것을 ‘대전(帶電)되었다’고 하는데, 대전된 물체의 전기가 다른 어딘가로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 있을 때, 이 전기를 정전기라 한다.

(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양전하를 띤 원자핵과 음전하인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의 물질은 양전하와 음전하의 양이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 일부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여 전자를 받아들인 물체는 음전하로, 전자를 잃은 물체는 양전하로 대전되어 정전기를 띠게 된다. 그런데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전하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므로, 대전된 물체에서도 같은 전하를 띤 물체는 밀어내고 다른 전하를 띤 물체는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

(다) 현대 사회의 필수품인 복사기는 정전기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대표적 장치이다. 복사기 내부는 양전하로 대전된 감광체가 도포되어 있는 원통형 드럼과 음전하로 대전된 토너, 움직이는 광원, 열원, 정교하게 만들어진 여러 개의 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 정전기가 갖는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드럼과 토너이다.

(라) 복사하려는 문서를 투명한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복사 버튼을 누르면 유리판 아래로 빛이 지나간다. 문서의 검은 글씨 부분은 빛을 흡수하고 하얀 부분은 빛을 반사하여 원통형 드럼 위에 상을 형성한다. 이 원통형 드럼의 표면은 양전하를 띠고 있다. 그런데 드럼 표면에 빛이 닿으면 빛이 닿은 부분은 드럼 표면의 양전하가 드럼 내부의 음전하와 중화되기 때문에 전하를 띠지 않게 된다. 따라서 빛을 받지 않은 곳만 양전하 상태로 남게 된다. 이 상태의 드럼에 음전하를 띤 토너가 접근하면 양전하로 대전된 부분만 토너 가루를 끌어당겨 붙인다. 이 때 드럼 아래로 종이를 통과시키면서 그 종이에 드럼 표면의 전하보다 강한 양전하를 걸어주면 토너 가루들은 드럼에서 떨어져 그대로 종이를 옮겨 가 글씨를 형성한다. 이렇게 종이 위에 형성된 글씨는 정전기가 있는 동안만 유지된다. 그래서 그 글씨를 고착시키기 위해 이 종이를 180℃ 이상 되는 뜨거운 롤로 압착하면 복사가 완료되는 것이다.

(마) 정전기는 복사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매년 여과 장치의 필터에 정전기를 유도하면 미세 먼지들을 걸러낼 수 있다. 그리고 우주선의 외장재에 우주 먼지와 동일한 전하를 띠도록 정전기를 유도하면 우주 먼지가 들러붙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전기의 원리는 복사기에서 우주선에까지 널리 활용되는 과학적 원리이다.

41.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정전기의 개념을 밝혀 내용 전개에 바탕으로 삼고 있다.
- ② (나) : 정전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 ③ (다) : 정전기의 원리를 응용한 대표적 장치를 소개하고 있다.
- ④ (라) : 복사가 이루어지는 원리와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 정전기가 지닌 효용적 가치를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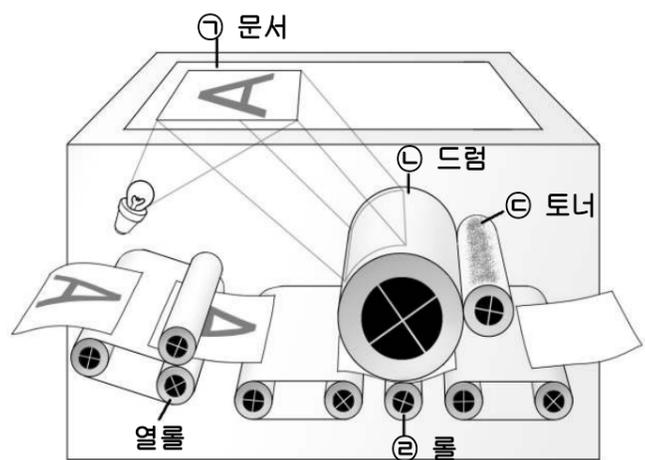
42. ㉔를 <보기>의 과정으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빗과 머리카락을 마찰시킴.  
 ㄴ. 빗과 머리카락이 정전기를 띤.  
 ㄷ. 빗과 머리카락 사이에 정전기력이 작용함.

- ① ㄱ으로 인해 빗과 머리카락 사이에 전자가 이동한다.
- ② 마찰 전의 빗과 ㄴ의 빗은 전하의 양에 차이가 있다.
- ③ ㄴ의 빗이 음전하를 띤다면, 그때의 머리카락은 양전하를 띤다.
- ④ ㄷ의 빗과 머리카락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 ⑤ ㄷ의 머리카락들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43. 다음은 복사기의 내부 구조도이다.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에 빛을 쏘면, ‘A’라는 글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빛을 반사한다.
- ② 반사된 빛을 받은 ㉓에는 ‘A’라는 글씨 부분만 상이 형성된다.
- ③ ㉓에서 ‘A’라는 글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바뀐다.
- ④ ㉓의 ‘A’라는 글씨 부분과 ㉔의 음전하로 대전된 토너 가루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 ⑤ ㉓과 ㉔ 사이에 종이가 통과할 때, 종이는 양전하로 대전되면서 ㉓에 붙어 있는 음전하의 토너 가루를 끌어당겨 붙인다.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것에는 양분적 방법에 의한 것과 ㉠ 정도적 방법에 의한 것이 있다. 언어 현상을 체계화하여 기술하기 위해, 야콥슨은 어떤 언어적 자질의 있고 없음에 따라 양분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언어학자들은 여러 언어 현상과 그 규칙을 간결하게 일반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양분적 방법에 의한 기술은 인간의 사고를 일정한 범위와 틀 안에 묶어 두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언어 현상의 다양한 국면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게 하였다.

국어 문장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에도 이와 같은 양분적 접근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요청성’은 비범주적 규칙 또는 정도성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국어에서 청자의 행동적 응답을 요구하는 문장은 일반적으로 명령문으로 범주화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요청성은 명령문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의미 자질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문을 닫아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 ㄱ. 문을 닫아라.
- ㄴ. 문 좀 닫을 수 없겠니?
- ㄷ. 문을 닫자.
- ㄹ. 문을 닫아 주기 바란다.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명령문뿐만 아니라 의문문, 청유문, 평서문의 경우도 단순히 의문, 청유, 서술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모두 요청성의 의미 자질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생님께서 “문 좀 닫을 수 없겠니?”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긍정과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학생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처럼 어떤 문장의 의미 자질은 범주화된 문장의 형식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각각의 문형이 가지는 요청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화자가 청자에게 문을 닫아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지만, 그 문장들은 강압성이나 정중성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ㄱ은 강압성이 가장 강하고, ㄴ은 강압적일 때와 온건할 때가 있을 수 있으며, ㄷ은 온건한 표현으로 보인다. 그리고 ㄹ은 정중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강압성과 정중성의 차이에 따라 요청성의 정도를 파악해 보면, ㄱ이 가장 강하고 ㄹ로 가면서 그 정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명령문, 의문문, 청유문, 평서문이라고 부르던 모든 문장 유형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요청성의 의미 자질은 각각의 문형에서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의미 자질은 양분적인 것보다는 정도적인 방법에 의해 기술될 필요가 있다. 국어에는 이 밖에도 동의성, 반의성, 사동성, 피동성 등 범주적 규칙만으로 명쾌하게 기술하기 어려운 언어 현상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비범주적이거나 정도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4. 위 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 ① 야콥슨이 도입한 양분적 방법의 한계
- ② 명령문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자질
- ③ 범주화된 문형과 그 의미 자질이 불일치하는 사례
- ④ 여러 가지 문형에서 나타나는 요청성의 정도 차이
- ⑤ 국어에서 정도성의 분석이 필요한 여러 가지 언어 현상

4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판단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아 들 : 아버지, 제 용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 ㉠ 용돈을 올려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할 일부터 잘 해야 하지 않겠니?  
 아 들 : ㉡ 알았어요, 아버지. 그런데 앞으로 잘 하면 얼마나 올려 주실 거예요?  
 아버지 : ㉢ 만 원 정도 올려주면 되겠지?

- ① ㉠로 보아, 아버지는 아들의 첫 번째 말을 요청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로 보아, 아들은 아버지의 첫 번째 말에 담긴 문장의 의미 자질을 제대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로 보아, 아버지는 아들의 두 번째 말에 담긴 문장의 의미 자질을 제대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아들의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을 비교해 볼 때, 문장의 형식과 그 의미 자질이 그대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⑤ 아버지의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을 통해, 요청성의 의미 자질이 지배적인 문장들도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6.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두 문장의 반의 관계는 다양한 형식의 문장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형식에 따라 얼마나 반의적인지는 달라질 수 있다.
- ② 동의문이 될 수 있는 문장쌍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문장쌍이 동의성의 조건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의문문에는 순수하게 질문하는 의문문으로부터 “이 책 좋지 않니?”와 같은 수사 의문문까지 의문성을 달리하는 다양한 형식의 의문문이 존재하고 있다.
- ④ 사동문이나 피동문은 ‘-이-, -히-, -리-, -기-’와 같은 접미사를 붙여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게 하다’와 ‘-어지다’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
- ⑤ 격조사와 보조사 모두 문법적 기능과 어휘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다만 문법적 기능과 어휘적 의미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냐 하는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클리드는 ‘차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길이·폭·깊이라는 사물의 성질에 수학적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직선은 전형적인 일차원적 사물로 정의되는데, 이는 직선이 길이라는 단 하나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길이와 폭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평면은 이차원적 사물의 전형이며, 길이·폭·깊이를 모두 갖고 있는 입체는 삼차원적 사물의 전형이다. 이렇게 유클리드 시대의 수학은 삼차원 세계에 대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각을 수학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유클리드 이후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도 이 세계는 계속해서 삼차원으로 인식되었다. 사차원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수학적으로는 터무니없다고 무시되었다. 위대한 천문학자 톨레미조차 사차원에 대한 생각을 믿지 않았다. 공간에 서로 수직하는 세 직선을 그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와 같은 네 번째의 축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근대에 들어서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는 유클리드와 다른 방식으로 기하학에 접근했다. 대상의 길이·폭·깊이가 아닌 ‘좌표’라는 추상적 수치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어떤 사물의 차원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좌표의 개수와 상관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선은 오직 하나의 좌표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일차원이며, 두 개의 좌표를 써서 나타낼 수 있는 평면은 이차원이다. 같은 방법으로 입체가 삼차원인 이유는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세 개의 좌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클리드의 차원이 감각적인 대상의 특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질적이라고 한다면, 데카르트의 차원은 추상적인 수치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양적이었다. 그는 사차원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다가 결국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는데, 눈으로 보여 줄 수 없는 것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당시 수학자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차원의 개념이 인정을 받은 것은 19세기 독일의 수학자 리만에 이르러서이다. 그는 데카르트의 좌표에 대한 정의를 활용하여 0차원에서 무한대의 차원까지 기술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그에 따르면, 감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만 수학적 차원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단지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개념적 공간을 언급할 수 있으면 족한데, 그는 이를 다양체(manifold)라는 개념 속에 포괄하였다. 다양체는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의 개수만큼의 차원을 갖게 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어떤 대상이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한 차원에 가까운 다양체라고 할 수 있다.

차원에 대한 정의를 자유롭게 만든 리만 덕분에,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가 사차원의 다양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공간을 이루는 세 개의 차원에 시간이라는 한 개의 차원을 더하면 우주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47. 위 글의 성격을 가장 잘 파악한 것은?

- ① 사차원의 존재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② 차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③ 수학의 발전 과정과 수학자들의 연구 방법을 분석하고 있다.
- ④ 다차원에 대한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차원에 대한 기존 이론을 비판하여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4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리만은 0차원에서 무한 차원까지 기술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데카르트는 좌표라는 추상적 수치 체계로 차원을 설명하였다.
- ③ 유클리드는 직선을 두 점으로 이루어진 이차원적 사물로 보았다.
- ④ 톨레미는 공간에 네 번째 축을 그리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⑤ 아인슈타인의 사차원은 공간에 시간이라는 한 개의 차원을 더한 것이다.

49. ‘리만의 이론’을 소개하는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체의 존재를 통해 데카르트의 차원 이론을 옹호하다.
- ② 다양체를 이루는 여러 요인을 수학적 차원으로 넘기다.
- ③ 공간의 차원에 대한 유클리드의 고전적 인식을 부활시키다.
- ④ 반복적인 증명을 통해 지각될 수 있는 차원의 수를 밝히다.
- ⑤ 감지할 수 있는 공간의 차원을 개념적 공간으로 해방시키다.

50. <보기>의 ( ) 속에 들어갈 어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리만의 발상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 )이/가 되었다.

- ① 모태
- ② 규범
- ③ 귀감
- ④ 표본
- ⑤ 척도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